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 10. 15.(목) 배포 즉시	사진	○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평화협력과 (평화기획팀)	과 장	우병배 (031-8030-2410)				
		팀 장	박규식 (031-8030-2411)				
		담당자	문이슬 (031-8030-2415)				

경기도, 평화공존의 길을 열다 주제로 에코피스포럼 열어 통일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공동 개최

-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 교수 기조연설, 통일부·경기도지사 기조대담 등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모여 평화 담론 펼쳐
- DMZ의 평화적 활용부터 동북아 평화협력까지... 공식 홈페이지 통해 사전 참가신청

경기도와 통일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10월 28일 소노캄 고양에서 ‘2026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DMZ OPEN 페스티벌’의 핵심 학술 행사로,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평화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다.

올해 포럼은 ‘평화공존의 길을 열다’를 대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제사회를 아우르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화 담론을 펼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세션, 평화·생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전 기조세션에서는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의 발레리 줄레조 교수가 ‘평화의 길 의미와 잠재력: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지리학적 몽상’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 크리스토프 호이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과 발레리 줄레

조 교수가 함께 무대에 올라 깊이 있는 기초대담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포럼의 막을 올린다.

오후에는 경기도와 통일부와 에버트 재단이 각각 주관하는 3개의 세션이 개최된다. 통일부가 주관하는 첫 번째 평화세션은 최영준 전 통일부 차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DMZ의 평화적 이용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롤랑 드 크루송 AFP 기자, 펠릭스 글렌크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장 등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에버트 재단이 주관하는 두 번째 평화세션은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가 좌장을 맡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 아시아와 유럽의 시각’을 주제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댄 스미스 유엔군축연구소 수석연구원, 사요 사루타 신외교이니셔티브(New Diplomacy Initiative) 대표 등이 라운드테이블을 갖는다.

경기도는 생태세션으로 ‘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국내 세미나’를 연계 개최해 ‘한반도 생태평화협력: DMZ에서 시베리아까지’를 주제로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고경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현장을 찾는 국민과 청년들이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행사장에는 통일부가 제작한 ‘DMZ 빅게임’ 체험존이 설치되어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기념품 지급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DMZ OPEN 에코피스포럼 공식 홈페이지(www.dmzepf.c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이번 포럼은 경기도와 통일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등 국내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DMZ의 가치를 학술적·정책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평화와 공존의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